음주운전 2회땐 면허 취소…단속기준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

고속도로 적발 바로 면허취소
광주·전남 3개월간 특별단속
경찰청 음주운전 근절책 마련

앞으로는 소주를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건강 및 체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60㎖)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차량 압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돼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등 전국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한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응급처치 누가 누가 잘하나 2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강당에서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 골절처치 등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 안중근 의거 109주년 남북 공동행사

의거 현장 中하얼빈서 3일간
학생·교사 22명, 北 종교인 참석

전남도교육청이 안중근 의사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북한과 함께 열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중국 하얼빈 금곡호텔에서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하얼빈 금곡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강지영)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와 전남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는 김영중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도내 고교생 13명, 교사 등 22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109년 전 안의사 의거 현장인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 하얼빈 외곽에 위치한 731부대(일본군 비밀 생체실험 장소) 등을 돌아봤다.

전남 학생들은 25일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서울에서 온 안중근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도 하고 '안중근의 동양평화와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도 열었다.

안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하얼빈 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 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했다. 안의사 의거는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였으며, 침체되어 있던 항일운동을 다시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교육청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통일희망열차의 북한경유 및 안중근 생가(황해도 신천군)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
광주 99%로 전국 1위
전남은 8.0%로 최하위

광주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은 99.2%로 전국 최고수준, 전남은 8.0%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광주 244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기간제 포함) 36명, 사서(무기직 포함) 206명 등 전담인력 24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에는 736개 학교도서관이 있지만 사서 교사만 59명 있다.

광주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9.2%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8.0%로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은 43.9%였다. 사서 교사는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권한이 있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다. 사서는 전체 4424명 중 3539명(80%)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3525명(99%)이다.

김 의원은 "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50	달뜸	21:31
해짐	17:42	달짐	11:12

강풍 조심하세요

비닐 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세요.

광 주	구름 많음	9/18	보 성	구름 많음	5/17
목 포	구름 많음	12/19	순 천	구름 많음	9/19
여 수	구름 많음	12/18	영 광	구름 많음	10/17
나 주	구름 많음	6/18	진 도	구름 많음	10/18
완 도	구름 많음	11/19	전 주	구름 많음	9/16
구 례	구름 많음	7/17	군 산	구름 많음	8/16
강 진	구름 많음	8/19	남 원	구름 많음	7/17
해 남	구름 많음	7/19	흑산도	구름 많음	14/19
장 성	구름 많음	6/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	서~북서	1.0~2.5
	먼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1.5~2.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먼바다(동)	서~북서	1.5~3.0	서~북서	1.5~2.5
	먼바다(서)	서~북서	1.5~3.0	서~북서	1.5~2.5

◇생활지수

뇌졸증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01	04:53
	22:40	17:37
여수	05:23	12:03
	18:02	--:--

◇주간 날씨

30(화)	31(수)	11/1(목)	2(금)	3(토)	4(일)	5(월)
7/14	5/15	4/16	5/17	6/18	7/17	8/19

국립대학병원 고용세습 의혹 채용자 110명

전남대병원 21명 두번째 많아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에서도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신규 채용자들이 많아 고용세습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8일 국립대학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강원대병원·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은 21명, 충남대병원은 16명, 강원대병원은 14명,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 13명의 채용자가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이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부산대병원이 13명,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각 7명, 경북대병원·충남대병원 각 3명이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교수, 간부급(2~3급) 재직자 자녀 5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곽의원은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산유원지 리프트 적정운영자 미배치 운영정지 10일

광주시 동구는 "행락철 대비 삭도(궤도)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적정 근무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지산유원지 리프트에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동구는 지산유원지 리프트 근무인원에 대해 승강장·종강장 각 2명, 운전실 1명 등 총 5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도운송법 제21조(안전수칙)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가 적정인원의 궤도운송종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